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1991. 5. 8

鄭 圭 燮(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硏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1. 李鵬 總理 訪北의 背景 및 結果 …… 3

가. 背景과 動向 …… 3

나. 結果分析 …… 4

2.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 …… 5

가. 中·北韓 傳統的 友好關係의 持續 …… 5

나. 北韓의 對美·日接近 加速化 …… 5

다. 南北高位級會談 再開 可能性 增大 …… 6

3. 韓國의 考慮事項 …… 9

가. 北韓의 戰術的 柔軟性 對備 …… 9

나. 北韓의 對美·日接近 與件 造成 …… 9

다. 유엔同時加入 與件 造成 …… 10

빈 면

1. 李鵬 總理 訪北의 背景 및 結果

李鵬 中國 國務院 總理는 5.3~6간 北韓을 방문, 金日成 주석 및 延亨默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개최함. 이번 訪問의 背景 및 結果는 다음과 같음.

가. 背景과 動向

(1) 李鵬 총리의 평양 방문은 1990.11 延亨默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짐.

(2) 이번 방문은 4.16~4.20간 日·蘇, 韓·蘇 頂上會談 이래의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변화에 대응하고,양국간 군사·경제분야 현안협의와 5.15 개최예정인 中·蘇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대비, 南北韓 유엔가입문제,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관한 의견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이는 東北亞 域內國家間 兩者關係의 재조정으로 나타나는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대응하려는 中·北韓 양국의 필요에 기인함.
- 양국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政治變動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에 공동대처 노력의 필요성과 특히 고르바쵸프의 訪日, 訪韓으로 일·소관계 개선가능성 증대, 한·소관계 긴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전통적인 友好關係 증진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3) 李鵬의 주요 訪北 동정은 다음과 같음.

- 李鵬은 5.3 연형묵 총리와 總理會談을 개최하여 현 국제정세하에서 양국간의 團合을 增進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만찬연설에서 李鵬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골자로 하는 北韓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

○ 5.4 중국대표단은 김일성과 회담 및 오찬 후, 5.1경기장, 만수대 창작사,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함.

○ 金日成과의 회담에 대해 「평양방송」은 "따뜻하고 친선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함.

- 중국측 참석자 : 李鵬 국무원 총리, 羅幹 국무원 비서장, 遲浩田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黃毅成 能源(에너지)部長, 李嵐淸 대외경제무역부장, 鄭義 주북한대사, 외교부 부부장, 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
- 북한측 참석자 : 김일성 주석, 김정일 당비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연형묵 정무원 총리,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최광 인민군 총참모장, 김용순 당중앙위 국제부장, 주창준 주중국대사.

○ 5.5 李鵬 일행은 원산을 거쳐 금강산 관광, 인접 학교, 농장을 방문하고 5.6 귀국함. 北韓 放送은 중국 대표단의 원산방문시 市民들의 열광적인 환영내용을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강조함.

○ 5.6 李鵬은 離北韓 感謝電文에서 양국간의 친선관계를 재강조하고, "이번 방문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원만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음.

나. 結果分析

(1) 李鵬 총리의 방북에 總參謀長, 能源部長, 對外經濟貿易部長 등이 수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양국간의 논의 초점은

軍事·經濟分野에 있었을 것임.

- ㅇ 군사적인 측면에서 양국간의 軍事協力 方案과 함께 북한의 核査察 수용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ㅇ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무역 결제방식의 硬貨決濟로의 전환문제 및 경제협력 방안과 함께 北韓의 대외개방문제를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임.
- ㅇ 특히 최근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위기와 관련, 중국의 對北韓 석유공급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ㅇ 한편 이번 李鵬 訪北에서 한국의 유엔가입, 한반도 통일정책, 북한의 핵사찰수용, 韓·中관계 등 한반도문제에 관한 협의도 양국간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판단됨.

(2)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합의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희박함.

- ㅇ 李鵬 총리의 방북일정에 비추어, 金日成 및 延亨默과의 회담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관광 등 친선방문의 성격이 강하였음.
- ㅇ 통상적으로 中·北韓 고위급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에 관한 원칙적 합의만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실무회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져 왔음.
- ㅇ 북한 역시 韓·中關係의 증진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국의 대유엔정책, 통일정책 등에 대한 확고한 支持獲得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보임.
  - 이는 북한의 報道態度에서도 예증됨. 북한은 李鵬 방북에 대한 事前報道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訪北 동정에 관해서도 간헐적으로 보도하면서 양국의 전통적인 親善關係를 강조하는 데 그침.

(3)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전통적인 紐帶關係 지속,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지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지지, 한반도 긴장완화 강조 등이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며 그 意味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됨.

- ㅇ 양국이 國際情勢의 어떤 변화에도 친선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동북아 질서재편에 共同步調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ㅇ 북한이 중국의 改革·開放政策을 지지한 것은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건설을 지지하고 對外開放政策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음을 의미함.
- ㅇ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지지, 한반도 긴장완화 강조 등이 표명된 것은 중국이 북한의 統一方案을 지지하지만 南北對話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됨.

(4) 이번 會談은 양국관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기본입장 표명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조속히 타결될 것같지는 않음. 한국의 유엔단독가입, 한·중수교 등 구체적인 懸案問題에 관한 合意는 없었다고 보임.

- ㅇ 특히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예측된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中國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일의석 하의 유엔가입」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中國은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에 대한 기권 또는 거부권 행사 보다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강조했을 것으로 분석됨.

2.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

가. 中·北韓 傳統的 友好關係의 持續

(1) 李鵬 총리의 이번 방북에서 중·북한 전통적 선린우호관계가 재차 강조되었음에 비추어, 양국간 전통적인 「脣齒關係」는 지속적으로 유지 될 것으로 보이나, 무역분야를 비롯한 經濟問題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재정립될 것임. 반면 중국은 對韓關係에 있어서 北韓要因을 계속 고려, 한·중 수교 및 한국의 유엔단독 가입에 대한 공식적 지지 등에는 소극적일 것으로 보임.

○ 한편 中·北韓 友好關係의 지속이 북한·소련관계의 급속한 冷却을 의미하지는 않음. 北韓은 1991. 4 韓·蘇 정상회담 결과 진전되고 있는 韓·蘇關係 발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蘇聯의 對北韓 경제·군사·외교적 영향력에 비추어 소·북한 양국관계를 건실하게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동북아 양자관계 개선 추세에 따른 韓·中 관계개선 당위성 및 중국 경제발전에의 한국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 中國이 對韓關係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外交政策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北韓의 對美·日接近 加速化

(1) 중국은 기본적으로 韓半島情勢의 긴장완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중국측은 李鵬 총리의 이번 訪北을 통하여 對美·日 關係改善을 북한에 촉구하였을 것임.

○ 北韓은 한·소 수교 및 한·중 무역대표부 설치, 일·소 관계개선 모색 등 동북아 양자관계의 再調整 趨勢에 대응

하고, 중·소의 대북한 경제지원 감소 및 자력갱생노선의 한계에서 파생된 經濟問題解決을 위해 對美·日 관계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ㅇ 김일성이 금년 新年辭와 4.29 IPU總會演說에서 美·日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의도를 의미함.

(2) 따라서 北韓은 대미·일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北韓은 중국의 지지와 중개로 對美·日 接觸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ㅇ 이와 관련, 中國은 미·북한간의 北京接觸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북한간 현안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동시에 中國은 일·북한 수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3) 동시에 中國은 한·소, 일·소 정상회담에서 공식거론된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이번 李鵬 총리의 訪北을 통하여 북한의 핵사찰 수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을 가능성도 큼. 中國은 北韓의 核査察과 駐韓美軍의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음.

다. 南北高位級會談 再開 可能性 增大

(1) 李鵬 총리의 訪北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가 강조된 점에 비추어, 南北對話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ㅇ 北韓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美·日이 대북한 관계개선의 先決條件으로 제시하고 있는 南北對話에 일단 응할 필요가 있음.
- ㅇ 이에 따라 북한은 핵사찰문제, 한국의 유엔가입문제 등

남북한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南北高位級會談 재개와 함께 南北對話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음.

○ 5월중순 개최예정인 中·蘇 頂上會談에서 한반도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 정상회담 결과는 南北對話에 임하는 北韓의 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한편 북한은 기존 南北對話를 재개하면서 수정된 統一方案을 제시하고, 韓國과의 합작·교류 증대를 적극 모색할 가능성도 있음.

3. 韓國의 考慮事項

가. 北韓의 戰術的 柔軟性 對備

北韓의 統一政策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북한이 고위급회담 재개 등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더라도 이는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韓國은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변화와 전술적 유연성의 차이를 고려, 신중 대처하여야 할 것임.

나. 北韓의 對美·日接近 與件 造成

北韓의 對美·日關係 改善은 북한의 개방과 남북대화, 南北韓 交叉承認에 기여할 것임. 이는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韓國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유엔同時加入 與件 造成

한국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中國은 거부권 행사, 혹은 기권 등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유엔단독가입 실현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유엔가입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同時加入 설득노력을 계속하여, 유엔단독가입을 남북한 동시가입이라는 대북한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韓國은 유엔同時加入 또는 先加入 이후의 南北韓關係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